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예술위원회 운영시설 보안 점검 -

2016.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2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최근 정부청사에 침입해 무단으로 성적을 조작한 사건으로 인하여 국무총리의 긴급지시를 통해 정부청사의 경비와 방호, 전산장비 보안 등 보안 강화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시설인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 집, 창의예술인력센터의 보안실태 사전조사 결과 보안체계 및 시스템 부실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예상된다.

이에 위원회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국가와 국민의 귀중한 정보를 지킬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보안체계 개선을 목표로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 범위 및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위원회 나주 본관과 위원회가 운영 중인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 집, 창의예술인력센터, 예술자료원, 상기 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물 보안 체계 및 현황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 기간 및 인원

2016. 5. 24.부터 같은 해 6. 2.까지 감사인원 3명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감사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 7. 4.까지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예술위원회 운영시설 보안 점검 특정감사 총괄<처분요구사항>

번호	제 목 (지적사항)	처분 요구사항	비 고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시설 보안체계 및 보안설비 개선	권고	

한 국 문 화 예 술 위 원 회

권 고

제 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시설 보안체계 및 보안설비 개선
관 계 부 서 극장운영부(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시각예술부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 집), 창의예술인력센터, 예술자료원

내 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공연 및 전시를 통한 예술 진흥과 문화예술향유층 확대를 위해 순수예술단체들에게 발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는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 미술관, 예술가의 집(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소재)을 비롯하여, 무대 및 공연 예술 전문인의 육성과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창의예술인력센터, 문화예술자료를 수집하고 국민들에게 향유의 장을 제공하는 예술자료원 등의 문화예술 전문공간을 확보·운영하고 있다.

시설물 보안체계 및 대관절차 개선

「일반보안업무지침」 제13조(외부자의 출입제한) 2항에 따르면 위원회 내부직원은 외부자가 출입권한이 없는 시설에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17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7항 1호에 따르면 출입통제 장치를 통한 신원확인 및 권한 없는 인원에 대한 출입 제한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의 경우 공연시간 이외에는 외부인에 대한 출입통제가 필수적인 내부 공연장이 개방되어 있었고, 스튜디오 다락(아르코 예술극장 옥상), 스튜디오 하늘(대학로예술극장 옥상) 등 외부 대관시설의 출입구가 사용 외 시간에도 개방되어 있었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의 경우 무대 정비가 진행 중인 오전 시간대에 1, 2층 일부 객석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었으며, 소극장 또한 객석 출입구와 분장실이 개방되어 있어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무대 및 객석, 조명, 음향 기기로의 접근이 가능하였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층에 위치한 회의실 또한 신분확인 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회의실은 출입카드리더기 및 도어락으로 보안되어 있으나, 회의실 사용을 희망하는 외부인에 대한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 없이 경비요원이 회의실을 개방해주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2개 시설 모두 외부인이 극장 내부 전역과 옥상까지 개방된 통로를 이용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였다. 두 곳 모두 경비가 상주(아르코예술극장의 경우 대극장 1층 로비, 대학로예술극장의 경우 2층 대극장 입구)하고 있으나, 외부인의 출입에 대해 적절한 통제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극장의 경우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는 개방된 로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시설 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로예술극장의 경우 극장이 소속된 건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1차 관문인 건물 1층 입구에 경비가 상주하지 않고 있으며, 건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와 출입구의 수가 많고 이 또한 모두 개방되어 있어 외부 침입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건물 전체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보안 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르코예술극장 내의 일부 구역(대극장 로비에서 소극장으로 향하는 통로 우측 공간)에서 휴지통을 비치하고 내·외부인들이 흡연을 하고 있었다. 아르코예술극장은 600석이 넘는 대형 규모의 극장으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연장’의 경우 다른 공중시설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의 4호 및 17호에 따라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아르코미술관의 경우 전시장과 아르코미술관 본관 2층에 자리한 대중 개방형 공간(아카이브)이 별도 보안시설 없이 연결되어 있다. 외부인이 이 공간을 통해 이동한다면 별다른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술관 본관 2층 로비를 거쳐 본관 3층 사무공간까지 출입이 가능하다.

경비데스크 및 경비요원은 아르코미술관 본관 1층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술관 본관 2층과 연결되어 있는 아카이브를 통해 출입하는 외부인은 대부분이 전시 관람객으로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아카이브 내에는 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전문 경비요원은 아니므로 보안 역량은 낮으며, 지정된 자리를 비우는 횟수 또한 빈번하였다. 때문에 아카이브 공간부터 2층 로비, 3층 사무공간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문제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예술가의 집 내부 카페의 경우 1층 사무공간 내 비치된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화장실로 이어지는 통로에 사무공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카페를 이용하는 외부인들에게 사무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술가의 집 1층 사무공간에는 위원회 전산망 접속 및 통신 업무가 가능한 스마트 워크룸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안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창의예술인력센터의 경우 센터 입구에서 출입과 방문 내역의 기록·유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센터 전체를 경비하는 인력은 한 명에 그치고 있다. 창의예술인력센터는 실험무대, 무대미술스튜디오, 연습실, 강의실 등 다수의 대관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서 한 사람의 경비 인력만으로 시설물 전체를 통제하고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비인력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주요 보안설비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CCTV 또한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내·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어렵다는 보안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위원회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주간 근무 시간보다 시설 대관 단체의 야간 및 철야 작업 시 보안 및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위원회 직원의 당직근무 및 경비인력의 야간 순찰 체계를 정비하고, CCTV 등 보안 시설의 확충 조치가 필요하다.

예술자료원의 경우 예술의 전당 내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예술의 전당 측에서 보안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방계획서의 경우 예술자료원의 자체적인 소방계획서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서적 및 간행물, 문헌 등 다량의 소장자료를 보유·관리하는 예술자료원의

특성 상 화재와 재난 등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소방계획서 마련이 필요하며,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방호 교육 또한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각 운영시설의 담당 부서인 극장운영부와 창의예술인력센터에서는 감사부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운영시설 내 부족한 보안설비 및 인력을 확충하고 미비한 보안체계를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개선 조치사항에 대한 중간 진행 상황을 제시하였다. 예술자료원 또한 소방계획의 보완과 재정비하고 예술자료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점검 등을 계획 중이라고 답하였다.

조치할 사항

[권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시설물을 찾는 고객은 물론 위원회 임직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용과, 국가 및 국민의 소중한 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운영 중인 각 시설물의 보안설비 및 인력, 보안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위원회 운영시설 보안점검 결과

점검 시설	현재 상황(문제점)	개선방향	
아르코 예술극장	1,2층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 준비가 진행 중인 오전 시간대 외부인들이 제재 없이 공연장 출입 가능 - 공연장 객석으로 출입하는 일부 게이트가 열려 있음 - 대극장과 소극장으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 또한 개방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대별, 상황별 차별화된 구역 통제 시스템 필요 * 공연이 없는 오전 시간대와 공연 및 연습이 진행되는 오후 시간대에 맞춤형 통제 체계 마련 - 공연 이외의 시간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통제(차단봉 비치 등)
	2층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경비원이 회의실을 개방해 줌 - 회의실은 극장 전층을 관통하는 나선형 계단과 연결되어 있어 극장 내부(조명, 음향실 등) 주요 시설 접근 가능 * 극장 내부에 위치한 나선형 계단은 극장 내 주요 시설(조명, 음향실 등)로 연결되는 거점 통로로서 각별한 보안 관리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및 연습공간 사용자 관리 체계 마련 (ex. 업무포탈 내 자원예약) - 사용 및 사용자내역을 경비 인력과 공유하고 신원 확인 후 개방토록 조치 - 출입구 단속 철저(스튜디오 다락, 일부 통로 폐쇄(회의실-나선형 계단))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서 제재 없이 계단을 통해 옥상 출입 가능 - 스튜디오 다락은 사용 시간이 아님에도 개방되어 있었음 	
	3층 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식당으로 가는 통로는 나선형 계단과 연결되어 있음 - 식당 사용자 중에는 공연단체도 있어 주요 시설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이용에 대한 통제·관리 및 식사 공간의 이전 조치 검토 - 식당 운영 필요성 재검토 (타 극장 식당 운영 사례 조사 필요)
	소극장 (지하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석 출입구 및 소극장 분장실, 대기실이 개방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선형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의 경우 직원들과 협의 후

점검 시설		현재 상황(문제점)	개선방향
		- 특히 분장실 및 대기실은 대극장 내부로 통하는 나선형 계단과 연결되어 있어 보안 조치 필요	보안 강화 혹은 폐쇄 조치
	공연장 전반	- 경비원 수(1명)에 비해 경비 공간이 광범위함 - 금연 구역인 극장 내부(예술극장 앞마당 연결 부분 출입구와 유리벽 사이의 공간)에서의 공연스태프들 흡연 문제	- 인력 총원 혹은 CCTV 등 보안 시설 확충 등 - 극장 내 전 지역 금연 조치
	지하1층	- 같은 공간 내 사무공간(무대예술부, 극장운영부, 협력개발부, 창의예술인력센터 등)과 대중에게 개방된 공간(리딩룸, 연습실 등)이 혼재되어 있음 - 외부인들이 사무공간 내 통로를 별도 제재 없이 통행할 수 있음	- 사무공간 이전 및 통폐합 방안 검토 * 대학로예술극장을 대중 개방 전용 공간으로, 아르코예술극장은 사무전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 사무공간 재구획을 통해 보안 장치 추가 설치 및 통제, 일부 출입구 폐쇄 등
대학로 예술극장	옥상	- 스튜디오 하늘은 사용 시간이 아님에도 개방되어 있음	- 연습공간 사용자 관리 체계 마련(ex. 업무포탈 내 자원예약) - 관리자 및 경비원에게 사용 및 사용자 내역을 공유하고 신원 확인 후 개방토록 조치
	공연장 전반	- 상업시설이 입주해 있어 출입구가 많으며, 통제시스템이 부재함 - 경비원 수(1명)에 비해 경비 공간이 광범위함 - 근무 위치가 건물 입구가 아닌 2층 대극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 출입자에 대한 1차적 통제가 어려움 - 순찰로 인해 근무지(경비데스크)를 자주 이탈하는 문제	- 건물 보안을 위한 전반적 보안 체계 마련(외부전문기관 자문 및 컨설팅 필요) - 경비원 근무 관리 체계 강화 - 경비인력 총원 혹은 불필요한 출입구 통제 강화 및 일부 폐쇄 검토
아르코 미술관	2층 (전시실-본관)	- 관람객이 미술관 제2전시장을 관람하고 본관 2층에 위치한 전시실(아카이브)과 2층 로비를	- 미술관 본관 2층 전시실(아카이브)에서 사무공간으로 통하는 본관 계단 및 출입구

점검 시설		현재 상황(문제점)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처 미술관 본관 3층에 위치한 사무공간으로 출입할 수 있음 - 아카이브 공간 내 안내요원의 근무지 이탈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 강화 - 안내요원 근무 관리 체계 강화
	3층 사무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실 운영으로 인해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공간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예술가의 집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내 카페 이용자들이 화장실 사용을 위해 이용하는 통로가 사무공간(스마트워크룸 등)과 연결되어 있음 - 건물 뒤편으로 통하는 후문 또한 개방되어 있어 외부인들의 출입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공간 출입 보안 강화 및 기타 조치 - 2층과 1층을 잇는 계단 통제 - 후문 출입 통제 방안 마련 등
창의예술 인력센터	시설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원 수(1명)에 비해 경비 공간이 광범위함 - CCTV 등 보안 설비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충원 혹은 CCTV 등 보안 장비 설치
	대관시설 (무대미술 스튜디오, 실험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단체의 야간 및 철야 작업 시 보안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 장기 대관 시 당직 및 야간 순찰 체계 정비
예술자료원	시설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재난 상황 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계획서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자료원의 소장자료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소방계획서 마련 - 직원 대상 보안·방호 교육 병행